

청년의 자아상에 적용된 사회극의 효과*

The Effect of Sociodrama on Adolescents' Self-image

한양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李正淑

Dep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ersity

Assistant Prof: Jung Sook, Lee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문제 설정 및 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self-image of the adolescence which is interdependent with the reality helps to develop character formation, mental health and adaptab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he self-awareness and self-image of the adolescence could be changed, through the sociodrama in which their inner aspects such as dream, imagination, mental state, etc. may be expressed extempore.

The sociodrama has been performed 14 times by 6 volunteer students from June 13 to Dec. 20, 1994. They also had interviews and answered questionnaires. The result shows that the drama is helpful for the experimental group in such a way to establish the self-image, to take the opportunity to introspect themselves and to be aware of their own problems.

I. 서론

청년들의 의식은 현대사회의 상황속에서 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청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현대에 이르러 급격히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큰 변화 속에서 성인들은 청년들을 어떻게

* 이 논문은 1994년도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사회극 진행부분은 김유광 신경정신과 병원장 협조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대면해야 하는지 망설이게 된다. 중년 이상의 성인들은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청년들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진술한 노력을 해야 될 입장에서 있다. 또한 성인들의 청년상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자아가 강한 정의감에 넘치고 자진해서 사회의 문제를 해결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나 현대 청년들은 자신들이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Fink(1953)는 현대 청년들은 자기의 행동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사물을 생각하거나 독자적인 길을 걷기보다는 모든 사람과 같은 행동을 행하고 싶은 타인지향형으로 변화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Lewin(1951)은 인간의 행동은 현재에 처해 있는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나온 과거와 닻쳐올 미래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미래의 시간적 전망과 비행 자아통제기능, 충동억제, 불안은 미래의 시간적 전망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여 청년들의 미래는 자아상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비행청소년들의 특징은 상황을 만족하게 생각하는 것이 적고 충동을 조절하는데 능력이 없으며 미래가 단절해있다고 암울하게 전망하는등 인격이 미발달한다고 볼 수 있다 (Fink, 1953).

Rizzo A.(1966)는 청년에게 치료를 통하여 미래에 대한 시간적 전망이 확대되었을 때,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관찰했다고 밝히고 있다. Matulet N.(1969)는 카운셀링의 과정을 통해서 환자의 미래의 시간적 전망이 확실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오늘날의 청년은 자아가 약하고 미래의 시간적 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급격한 상황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사료된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청년기에 치료와 카운셀링 과정을 통하여 변화가 된다는 선행연구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래투사기법, 거울기법 등을 통하여 사회적 효과가 있는가 청년의 자아가 변화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자아 및 자아기능

에릭슨은 인간의 발달과정을 자아형성의 긍정적인 발달 대 부정적인 발달의 특징을 기준으로 하여 8단계로 나누고 이중 12,13~20세에 해당하는 청소년기 자아상이 확립되고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로 어느 단계보다 중요시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이 시기에 자아정체감이 완전히 확립되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성격적인 부적응을 겪게 되며 자아통합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여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중 자아개념 형성에 관하여 강조하였다(Erickson, 1963).

또한 자아주체성이 강한 사람은 자신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하나의 독특한 개인으로서 감지할 수 있고, 또한 오늘의 자기와 어제의 자기 사이에 일관성이 있도록 통합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였다. 이에 반해 주체성 혼동(identity diffusion)의 경우 Bronson(1959)에 의하면 과거와 현재 사이의 일관성 결여, 고도의 불안, 자기의 현재 특성에 대한 느낌의 동요 등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고 한다. 청소년기에서 주체성 위기를 원만히 해소하고 안정된 주체성 형성을 성취하여야만 소외감을 감소시키고, 의미 있는 자아개념을 가질 수 있고, 보다 강한 개인화와 자율성 및 보다 증진된 적응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에릭슨 및 기타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다 (Corger, 1973).

정원식(1968)은 자아개념을 한 개인이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의 장 및 자기자신의 주위 환경에 따라 자기의 존중의식, 자기만족 혹은 자기수용과 자기행동의 경향을 포함하는 내적 자아 준거체제와 신체적 자아, 도덕적 자아, 성격적 자아, 사회적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청년들의 자아는 현재 자신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보다 나은 자아확립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채석봉(1989)의 연구에 의하면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자아융합의 정도도 낮고 자아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못하며, 다소나마 지적 체제

에서 나오는 자기신념과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스트레스와 긴장상황에서는 쉽게 변하며 정신병적 증상이나 청소년 비행을 나타내기 쉽다고 하여 자아분화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변수임을 밝히고 있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자아개념은 그의 성격형성, 정신건강, 관념, 신념, 자아실현, 우울성향, 정신분열증을 유발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김선경, 1987 김수진, 1991 ; 이성일, 1986 ; 이춘실, 1980 ; 전경렬, 1983 ; 조영주, 1990 ; 조희숙, 1994재인용 ; Lugo, 1979 ; Purkey, 1967).

그러므로 자신은 누구인가라는 차원에서 자신(self), 자아(ego), 자아지식(self-knowledge), 자아정체(self-understanding), 자아상(self-image), 자아존중감(self-esteem) 등의 개념들로 개인적 문제 못지않게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다.(박상미, 1991).

이상에서 청년들의 대인관계 자아수용이 자기 만족 등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며 자아융합이 낮거나 자아개념이 불분명한 사람들은 긴장상황, 쉽게 변하는 정신병적 증상이나 청소년 비행등의 문제로 자아확립등 자아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청년들은 변화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보다는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아확립에 도움이 되는 사회극을 통하여 청년의 자아의식이 어떻게 변화되고 새로운 자아상 확립에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사회극이란?

심리극의 최초의 형태는 가치극(axiodrama)였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전통적 문화)를 시험적으로 상영해서 이 결과에 의해서 이러한 가치를 생기게 한 원인을 재발견하려고 하는 방법이다. 가치극의 목적은 자발적인 드라마에 의해서 종교, 미학, 문화에서 상실된 가치에 생명을 부활시키는데 있

다. 최초의 가치극 형태(1918)는 점차 발전해서 1921년 사회극(sociodrama)형태를 취하게 되었으며, 모레노에 의해 1921년 4월 1일 원에서 최초로 상연되었다. 최초의 이극을 사회극으로 부를 수 있고, 이날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현재 <광기(foul)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다(Greenberg, 1974).

사회극은 다른 방법으로 관찰할 수 없는 현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베르그송 철학에서 3가지 개념을 이어 받았다. 제1은 행동의 지속적인 상황에서가 아니라 과거와 무관한 예상하지 못한 돌연히 나타나는 행동을 통해서, 제2는 과거로부터 독립된 행위는 그것을 수립하는 사람의 인격으로 표현될 수 있고, 제3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행하는 행동은 감추지 않은 진실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였다(條田勝郎, 1973 · 1975).

사회극에서 청년의 자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하는 측정을 다음 4가지 자발성을 근거로 하였다. 제1은 정열, 제2는 문화습득, 제3은 자발성에 의해서 새로운 조직, 새로운 예술의 형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개인 인격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창조성, 제4는 새로운 사태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 즉 새로운 사태에 적응해서 그것을 통합하는 반응이다(Melzppff, 1982).

이처럼 사회극 과정은 자발적 원리에 기초한다. 장면들을 극화하고 그 장면에 포함된 특별한 감정들 또는 보조자아를 이용하고 자발성을 증대시켜 욕구를 감퇴시키는 방법과 같은 심리학적 요소들을 구체화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자아 갈등을 잘 이해하고 통합하고, 수용하고 해결하도록 도와준다(Shearon, 1991).

사회극은 정신치료에서 상담자가 계속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그들의 행동을 극화, 역할극, 그리고 극적 자기 노출을 하는 정신치료의 한 방법이다. 말을 통한 의사소통이나 말이 아닌 신체언어들이 이용되는데, 여기에는 수많은 장면들을 상영함으로써 표현된다. 예를 들면, 과거의 세세한 사건들에 대한 기억, 끝나지 않은 상황, 내면의 드라마, 상상, 꿈, 미래에 닥칠 위험한 상황에 대한 예감 혹은 정신적 상

태를 즉흥적으로 표현하는 것 등이 있다(Kellerman, 1992).

이러한 사회극의 효과는 여러가지가 보고 되었는데 그중에 대학생들에게 실시한 결과 나를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문제를 행동으로 표현하면서 타인 감정을 이해하게 되었고, 개인적인 통찰력 때때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었으며, 친구와 갈등을 해결할 기회가 되어, 다른 사람들과 친밀감과 성숙되어 감을 느꼈다고 하였다(김해열, 1991; Smokowsk, 1992).

또한 Alzheimer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극 치료 효과에 있어서 16주 동안 자발성 훈련 및 사회극 실시 후, 긍정적이며 유머러스한 분위기를 갖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좋은 이야기 기법은 과거로부터 환자의 기억을 자극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Remer의 3인, 1993).

이상과 같이 사회극을 환자들이나 문제청년, 혹은 대학생들에게 실시한 결과 자아갈등을 잘 이해하고, 수용하며 해결하도록 도와주며, 보다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의 기회를 제공받음으로 자신이 자아 인식을 하여 자신을 확립하며, 보다 나은 인간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자아상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Ⅲ. 연구문제 설정 및 방법

1. 연구문제

선행연구를 근거로 청년의 자아개발과 대인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사회극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하고자 한다.

첫째, 청년들의 자아상은 무엇인가?

둘째, 사회극 실시후 자신에 대한 통찰력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를 알아보았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면접조사와 사회극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회극 실시후 느낌을 매번 쓰게 하였으며 사회극 종료시 자신의 통찰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1) 면접조사

본 조사의 연구대상은 사회극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서울시 대학생 6명으로, 연구기간은 1994년 6월 13일부터 1994년 12월 20일 까지 였으며, 연구는 14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연령은 19-26세의 남자 3명 여자 3명으로 모두 미혼이었다.

사회극 실시전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한 청년들의 고민과 문제점에 대해 면접조사를 하였다. 면담은 1994년 6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하였고 학생들과 14회 그룹면담과 3회의 개인면담을 갖었다.

2) 사회극

사회극은 김유광 신경정신과 소극장 “예”에서 실시하였다. 극의 진행은 사회극 참여를 원하는 6명과 소극장에 오는 사람들과 소그룹을 형성하여 자발성 촉진을 위해 사용된 유도된 환상, 세세한 사건들의 기억, 미래에 다칠 문제, 꿈, 역할전환기법, 미래투사 기법, 빈의자기법, 거울기법, 분배기법, 집단토론이 정신적 상태를 표현하며, 그 외 배경으로 음악과 특수 조명이 이용되었다. 사회극 감독은 김유광 원장과 보조자아로 연구자, 그날 극에 참석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사회극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청년들의 문제점과 사회극의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다(표 1).

6월 13일부터 8월 22일까지는 Moreno의 이론에 대해 공부하면서 회원 들간의 위밍업을 도모하였으며, 사회극을 실제 행한 것은 9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였다. 사회극 진행의 자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사회극의 내용

실시회수	실시월일	내 용
1 회	6월 13일	자기 소개, 자기 가치
2-5 회	6월 20일 7월 4일 7월 11일 8월 22일	자기 기준에 대해 이야기함 모레노에 대한 연구
6 회	9월 5일	전철에서 일어난 이야기 고등학교 선생님을 10년 후에 만남
7 회	9월 12일	무능력에 대해서, 부모님의 잔소리(귀가시간)
8 회	10월 10일	비바람 가운데 돌들의 움직임과 바위, 새싹, 물고기와의 만남
9 회	10월 17일	구름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진 곳에서 이웃과 만남
10 회	10월 24일	불만 많은 개구리의 역할에 대해서
11 회	11월 7일	산에 등산가서 각자 역할을 함(다람쥐, 비석, 나무, 나비 등의 역할)
12 회	11월 14일	5년후 - 미래에 대해서 마음에 든 여자에 구애하는 이야기, 미래의 나의 모습 이야기
13 회	11월 21일	방의 가구가 되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함
14 회	12월 5일	병어리가 되어서 슬픈 때, 기쁨 때, 분노의 감정을 이야기함

청년들의 면담결과 나타난 자아모습과 사회극 중 진행된 청년들의 자아상은 다음과 같다.

1. 면접을 통해본 청년들의 자아상

본 연구를 위해 3회의 개인면접과 14회의 집단면접을 통해 본 청년들의 사례별 자아상은 다음과 같다.

- 사례 1의 개인문제 : 학업과 진로문제를 뚜렷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성격이 다소 내성적이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3년간 사귀었던 여자 친구와 헤어짐으로써 이성교제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술을 좋아하고 자기 자신이 게으른 것에 대하여 불만을 느끼며 아버지와 대화를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례 2의 개인문제 : 자신에게 너무 소홀했던 관계로 학점문제가 있다. 또한 자신의 생활태도 전반에 불만이 있어 고치려고 노력중임. 짝사랑하는 여자친구 문제로 고민을 함. 아버지와는 전혀 대화가 없음.
- 사례 3의 개인문제 : 서울 생활에 적응이 힘들었다. 친구도 없고 친척들도 없어 쉽게 외로워 했고 자주 울기도 했다. 지금은 괜찮다. 현재 고민은 진로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아버지가 선원이셨기에 아버지와 관계가 서먹서먹하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좋지 않다.
- 사례 4의 개인문제 : 밤에 늦게까지 항시 새벽 4시, 5시에 잠을 자고 컴퓨터를 좋아하며 채보는 것을 좋아함. 게으르고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함. 군대를 가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함. 형과의 경쟁 갈등이 있음. 내성적인 성격을 보임.

- 사례 5의 개인문제 ; 비만한것. 쉽게 일에 지친다. 넓게보지 못한다. 사고가 제한적이다. 화술이 부족하다고 생각함 -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하지 못하고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이 힘들다. 대학교 1학년때 엄마와의 갈등이 있었음. 남자친구는 없고 친구사귀기가 힘들다.
- 사례 6의 개인문제 ; 능력을 키우고 싶다. 자랄때 집에서 왕이었다. 큰오빠 집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올해와 사이가 좋지 않다. 월요병이 있다.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사례 1,2,3은 학습과 진로문제에 고심하고 있으며 사례 2,4,5는 자신의 생활태도 전반에 불만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고 사례 1,2,3은 아버지와의 갈등을 나타냈다. 사례 4는 어머니와의 갈등, 형과의 갈등을 나타냈고, 사례 6은 올해와의 갈등을 보였다. 사례 1은 이성교제 실패 후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들은 자기자신의 주위환경에 따라 자기 존중의식, 자기수용과 자기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적 자아 형성과 의미있는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결과와 같다(정원식, 1968 ; Corger, 1973)고 볼 수 있다. 위의 면접 내용은 사회극을 통해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준 자신의 생활 태도에 대한 불만, 이성문제, 개구리, 다람쥐, 벙어리를 통해 자신들의 모습을 투사시킨 청년들의 자아상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다.

2. 사회극을 통해 본 청년들의 자아상

다음은 사회극 진행 내용으로 사회극에 참여한 청년들이 자신들의 문제점과 사회극 후 느낌을 쓰게 한 내용이다.

<10년 후 선생님과의 만남>

사례 3의 느낌 : “선생님을 좋아하는 여학생”이라는 상황에 적응하기가 힘들었다. 고등학교시절 선생님을 좋아해 본적이 없어서 선생님은 그저 두렵고 어렵고 조심스러운 존재였기때문에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는 것이 나와 너무 거리가 멀었다.

사례 6의 느낌 : 중학교때 미술선생님과 친구들이 생각났다. 졸업 후 한번도 만나지 못했다. 올해가 가기전에 그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야겠다.

<무능력에 대해서>

사례 1의 느낌 : 무능력을 주제로 한 사회극의 결과 자신 능력의 한계, 그것을 인정하고나면 자신의 무능력은 저절로 이해한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사례 2의 느낌 : 오늘은 심판받는 기분이었다. 오늘의 사회극의 진행은 과장되는 부분도 있었고 숨기는 부분도 있었지만 내가 오늘 정말 어려웠던 점은 내자신에 대해 내가 잘 모른다는 점이었다. 또한 내가 너무 자신감이 없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자신감 있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례 3의 느낌 :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꼈다. 내자신의 생각, 느낌을 큰소리로 말하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고 어색했다. 이시간을 통해서 감춰두려고만 하고 부끄럽게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자신을 갖게 되었다.

사례 4의 느낌 :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이 쉽지 않을것 같다고 생각했고 아직 경험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과연 내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다.

사례 5의 느낌 : “무능력”이라는 사회극을 하면서 보통정도에도 미칠 수 없는것이 가슴 아프고 사회속에서 어울리지 못하는것이 슬프다. 무능력을 아는것보다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것이 무능력을 극복하는데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러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다시 그 말로 인해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아주 좋다.

사례 6의 느낌 : 모든 문제의 근원은 자신에서 오는 것 같다. 문제해결의 열쇠도 자신이 갖고 있는것 같다. 무능력하다라고 자신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너무 욕심을 갖고 자기능력 이상의 일을 추진하면서 그것이 안되었을때 느끼는 죄질감에서 비롯되는것 같다.

<바위, 비바람 가운데 돌들의 움직임. 새싹, 물고기와 만남>

사례 1의 느낌 : 무대에 오르지만 정신집중과 물입이 힘들었고 나서고 싶지 않은 생각과 수동적인 자세로 임했다. 사회극 진행중 내가 하고싶은 말과 내 맘속에 있는 생각들을 표현하고자 하였지만 역시 힘들었고 옆에 있는 친구의 표현력이 진정 부러웠다.

사례 2의 느낌 : 사랑으로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사례 4의 느낌 : 뭔가 말하고 싶기도 하지만 아직 적극적으로 하는것이 꺼리킨다. 물고기 역할을 하면서 나는 육지에 못간다고 따지고 싶었지만 가만히 있었다. 어쨌든 다음번에는 지켜보기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구름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진 곳에서 이웃과의 만남〉

사례 1의 느낌 : 무언가 극을 잘해보겠다는 생각으로, 극장에 들어오기전 내 전부를 통해 몰입을 해보리라 결심했지만 빈의자에 내리쬐는 분위기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극 속의 수녀님과 대화속 가운데 하고싶은대로 자신감있게 행동하라는 말은 내게 조금 느낌을 주었다.

사례 2의 느낌 : 오늘 극 후 다소 나에게 위안은 되지만 아직 해결된 것 같진 않다. 내가 알지 못했던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내게 내재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아직 내가 자발성이 부족한 것 같다.

사례 4의 느낌 : 아직 나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 무대 중앙에 나가 불까하는 마음이 들어도 누군가 나의 목덜미를 잡고 놓지 않는 느낌이다.

〈불만 많은 개구리〉

사례 1의 느낌 : 불만 많은 개구리의 일부가 나 자신인것처럼 생각되어 지기도 하였다. 그래서 반항하고 개구리가 되고싶었는데, 사회극 후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 조금 당황이 되었지만 재미있었다.

사례 2의 느낌 : 오늘은 조금은 부담감을 느꼈다.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일들에 만족할 줄 알아야겠다. 그리고 내주위와 나자신에 대해서 자

신감을 갖고 생활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우선 최선을 다해야겠다.

사례 3의 느낌 : 사회극 후 항상 느끼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아주 작은 것에서 많은 의미들과 느낌을 받게된다. 개구리가 그렇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새, 사슴등의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의 의미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새삼스럽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이다.

사례 5의 느낌 : 대학에 와서 느끼는 친구와의 갈등 그룹안의 내 위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른다.(미해결된 내안의 문제들, 아픔들, 열등감, 한해에 대한 후회) 그러나 이 문제를 맞부딪쳐서 해결하는 것 보다 그냥 지나쳐 버리고 넘어가는 것이 좋은 때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등산을 가서 다람쥐, 비석, 나무, 나비등의 역할하기〉

사례 1의 느낌 : 다소 낯설고 어색한 극중 배역이었다. 그러나, 극중에서 험한 말을 내뱉는 자신에 대해 당황스러웠다. 너무 극단적인 상황은 부담스러워 피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사례 2의 느낌 : 오늘 지리산 천왕봉에 비석이 되어있었는데 나의 역할도 마음에 들고 비석이 되어보니 그것도 괜찮았다. 우선 방관자로 모든 것을 지켜볼 수 있어서 좋았고 천왕봉 꼭대기에 내가 있음으로서 내 소임을 다할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어서 좋았다.

사례 3의 느낌 : 여기에 와서도 언제나 내목소리가 작은것이 나에게 불만이다. 내주장이 없고 늘 끌려가는, 끌려주기 바라는 나의 수동적인 자세가 싫다. 무엇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늘 이시간에 기분이 좋았다.

〈5년후 미래에 대해서〉

사례 2의 느낌 : 5년후의 내 모습을 상상했을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되었다.

사례 3의 느낌 :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들었다. 그리고 생각하는 말들을 다하지 못해 늘 아쉽다. 마

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입밖으로 나올때 상당히 어색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색함, 축스러움없이 느끼고 받아들이고 싶은데.....

사례 4의 느낌 : 무대에서 몇마디 말을 했다. 여지껏 한중에서 제일 많이 한것같다. 5년 후의 모습 희망적인 생각을 하게되고 잘풀려갈 모습으로 생각한다. 어쨌든, 요사이 정신없이 살다가 모처럼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기회가 생겨서 좋았다.

사례 5의 느낌 : 사람이 사는 데 있어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고 사회적 성공, 명예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진부한 얘기 같지만 삶에 대한 사랑, 자신 일에 대한 사랑, 자신에 대한 사랑, 타인에 대한 사랑등 사람이 사랑을 갖고 살아간다면 결코 삶은 헛되지 않고 공허하지 않을 것이다. 성공적인 삶은 아니더라도 사랑을 갖고 산다면 그 삶은 진정한 아름다운 삶이 될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또한 그런 삶을 지향하려 한다.

사례 6의 느낌 : 자신의 일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인간관계가 힘들다는 생각과 주변인물과 너무 겉돌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방의 가구가 되어 하고싶은 이야기하기〉

사례 1의 느낌 : 오늘부터 시험이 시작된 탓에 온통 신경이 집중되지 않았다. 다만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 한다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졌다. 오늘 내가 맡은 창문의 역할이 침묵과 고요를 대변하는 사물이다. 무엇을 이야기 해야할지 난감했으나 내 창문에 대한 나의 시선이 조금은 달라져 보인다. 아주 친근하게.

사례 2의 느낌 슬픔, 기쁨, 분노, 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한다는 것은 힘들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서 감동이 즐거운 분위기를 이끌어 주위 사람들과의 대화도 따뜻했고, 기분이 한층 더 좋아진 것 같았다.

사례 3의 느낌 : 계속 생각해오던 일을, 몇일 밤잠도 못자고 생각하던 것을 이야기하였다. 할수 있을것 같지 않았는데. 하지만 다 얘기하지는 못하였다.

사례 4의 느낌 : 내가 말 할차례 일때 “글쎄, 라고

말했는데 사실 너무할 말이 많아 어떤말을 골라야 할지 몰아서 한말이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좋았다. 어쨌든 오늘은 즐겁게 하였다.

사례 5의 느낌 : 바라는 대상과 간접적인 대화를 하면서 그에게 실망을 준것을 깨달았다. 그 벽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병어리가 되어 슬픔, 기쁨, 분노의 감정을 이야기함〉

사례 1의 느낌 : 사회극에 몰입하려 하면 내안의 나의 모습이 나를 비웃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의 마음의 갈등이 되는 여자친구와 이해, 화해를 이룬 느낌이 들지만 극중에서 더욱 심하게 표현하고 싶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았다. 내자신을 좀더 몰입시켜 더 많은 경험을 하지 못했던 점이 가장 아쉽웠다. 하지만, 내자신이 얼마나 자발성이 결여되어있고 주위사람을 의식하는 면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회극을 마치면서 무엇보다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했다는 것이 너무도 흐뭇하다.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대로 계속 참여해보고 싶다.

사례 2의 느낌 : 나에게 있어서 큰 소득이었다면 내자신의 문제를 조금은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러 사람들의 문제들을 접하면서 내문제들을 조금은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조금은 공감 할 수 있었다. 여러사람을 접할 수 있었고 나에게 큰 경험을 준 것 같고 그리고 생활하는데 있어서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게 되어서 도움이 되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다시 있다면 기꺼이 다시 할 수 있다.

사례 3의 느낌 : 처음 시작할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웠다는게 솔직한 느낌이었다. 무대에 처음 설때도 굉장히 떨렸었다. 요즘도 떨리긴 하지만 대학 1학년 생활을 돌아볼때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다. “무능력” “불만 많은 개구리”를 할 때 사람들의 대화는 아직 어린 나에게 큰 경험이 되었고 지식이 되어주었다. 늘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는 자세에서 나에게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자세로 변화하고 있다고 느낀다. 솔직해지려고 노력하는 내모습도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아주 우연히 사회극에 참여하여서

시작했지만 참 많은 것을 얻었다.

사례 4의 느낌 : 거의 반년넘게 사회극을 하다가 마치니까 약간 섭섭한 마음이 든다. 처음에는 단지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직접해보니 전에 생각하던 것과는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전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이 하는것으로 알았는데 직접해보니 꽤 괜찮은것 같다. 그러나 내 자신을 좀 더 적극적으로 노출시키지 않고 참여하지 않은것이 아쉽다. 언제나 생각은 있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다. 그래서 언제나 끝나면 무언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다음에도 시간이 나면 가끔 찾아가 볼 생각이다.

사례 5의 느낌 : 원했던 만큼 나 자신을 던져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못했다는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타인의 여러감정을, 나 자신의 갈등의 해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자신을 조금씩 낮추어 갈수 있었다. 나 자신이 정해놓은 강박적인 태도를 조금은 바꾸었다고 생각한다. 무능력, 냉혹성등의 문제는 적용을 통해서 성숙하고 긍정적으로 해결이 될것이라 생각한다.

사례 6의 느낌 : 내자신의 역할에 만족을 하지 못했고 나자신을 남에게 솔직한 모습을 보이기를 주저했다. 그래서 약간은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극에 임하다보니 나자신 문제 해결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와 그들의 생각들을 접할 수 있었던것이 참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하는 사회극이 아닌 무대에 혼자서서 내자신의 문제만을 부각시켜 해결할 수 있는 사회극을 하고 싶다.

이상과 같이 사회극의 내용은 첫번째, 전철에서 흔히 일어나는 자리비켜주지 않는 청년들과 노인들과의 갈등을 역할 바꾸기를 하여 청년들의 모습과 고등학교 선생님을 10년 후 만났을때의 이야기를 하여 보았다. 두번째, 청년들이 많이 겪게되는 늦은 귀가 시간 때문에 부모님과과의 갈등을 행하여 봄으로써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번째, 비

바람이 지나간 후, 새싹들이 세상에 나오는 모습과 비바람에 끝없이 굴러가는 돌의 경험을 통해 자연의 신비함과 우주속의 나를 경험하였다. 네번째, 구름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진 곳에서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기회를 마련하였는데 한 청년이 세상에 나오기를 거부하여 염대왕 앞에까지 가서 다시 자신을 되찾아보는 경험을 하였다.다섯번째, 불만 많은 개구리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투사시켜 현실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여서 진지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진솔한 청년들의 자아상을 보았다. 여섯번째, 등산을 가서 다람쥐, 비석, 나무, 나무등의 역할을 하면서 자연의 모습을 통해 또 다른 자아를 경험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일곱번째, 5년 후 미래를 경험하여 미래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마음에 든 여자에게 구애하는 이야기로 구애자가 자신에게 구혼하는 것은 돈이 많아서라고 생각하여 모든것을 황금만능주의 사상으로 구성된 청년상을 볼 수 있었다. 여덟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가운데 소중히 생각하는 것의 주인공이 되어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기회로, 자신이 마음속의 갈등을 표현하여 마음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였다. 아홉번째, 병어리가 되어 신체적 언어표현으로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자신 내부의 상황을 내보여 또 다른 자신을 경험하였다.

이상 사회극의 내용에서 일상생활 역할극(전철에서 일어난 일, 부모님의 잔소리)은 정신적인 개인문제로 불만이 많은 개구리, 바위, 싹, 다람쥐, 비석 등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투사시켜, 자신의 인격을 통합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사회극은 과거의 세세한 사건들에 대한 기억, 끝나지 않은 상황, 상상, 정신적 상태를 즉흥적으로 표현하며 청년들이 새로운 사태에서 좋은 반응을 보임으로써 자발성을 증대시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개인 인격을 표현하는 창조성, 새로운 사태에 적용하며, 통합하는 반응(Melzoff, 1982)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극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갈등이나 불안이 노출되지 않을가하는 불안을 보는데 이는 김해열(1991)

연구와도 같은 것으로 마음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은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하는 의식이 감소되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대인관계의 적응을 위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아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여러 사람에게 노출되는 것을 불안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자발적으로 무대에 오르기는 하였지만 심리적 저항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극 진행과정 중 사회극 후 느낌을 쓰게 하여 청년들의 자아상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살펴본 결과 사례 1은 자신감있게 행동하라는 말에 위안을 느꼈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게 되었으며 극을 진행하는 중 나를 비롯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표현하였다.

내맘속에 있는 생각들을 표현하고자 하였지만 힘들었으며 무엇을 이야기 해야할지 난감하였다고 하여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아개념은 그의 성격형성, 정신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한(김선경, 1987; Lugo, 1979) 결과와 같았다. 사례 2는 극중 자신의 모습에서 내가 너무 자신감이 없다고 하였고 슬픔, 기쁨, 분노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한다는 것은 힘들다고 하여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기 힘든것을 통해 볼때 청년들의 자기수용 자아확립이 어려운것을 볼 수 있었다. 사례 3은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사회극 중에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어렵고 어색하다고 하였으나, 자기 생활과 접해있는 긴장상황을 사회극 진행중 이야기 하여 봄으로써 자아인식이 되는 기회가 되어 바람직한 자아상이 확립되는 것을 보여주어 치료와 카운셀링 과정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시간적 전망이 확대되었을때 바람직한 자아상 확립 영향을 주는 것(Matulet, 1969; Risso, 1966)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사례 4는 자신을 드러낼지 자신 할 수 없었고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였지만 잘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위의 경우 가정내의 어머니와 형과 갈등을 경험하면서 성장한 결과로 자아정체감이 확립되지 못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성격적인 부적응

을 겪게 되는 경우로 볼 수 있었다. 위의 사례는 늘 혼자다녔으며 특히 모든 활동을 새벽 4시에서 5시까지 하여 어머니와의 갈등을 일으켰는데 자아 분화수준이 낮은 사람은 자아 융합의 정도가 낮다고 한(채석봉, 1989) 결과와 같다고 볼 수 있었다. 사례 5에서 본 자아상은 인간관계가 힘들고 친구와 갈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자신에 특성에 대한 느낌의 동요를 많이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사례 6은 가장 많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로 자신의 문제를 노출하지 않았지만 면접결과 울케와의 갈등이 있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임을 볼 수 있었다.

이상에서 청년들의 면접 후 자아에 영향을 주는 상황은 학업과 진로문제, 자신의 성격, 내성적이고 게으른것에 대해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또 이성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으며, 짝사랑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가정문제로 아버지와 대화가 부족하며 아버지를 이해하는것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형과의 갈등, 울케와의 갈등을 보여, 청년들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환경에서 자신의 성격형성, 자아실현, 대인관계, 정신건강, 개인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성일, 1986; 정원식, 1968; 채석봉, 1989; Purkey, 1967).

사회극 진행과정 중 청년들의 자아상 변화를 본 결과 사례 1은 9회 사회극 가운데 7회를 참석하였으나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적극성을 보이진 않았지만, 사회극을 경험한 후 아버지와 관계가 좋아졌다고 하였다. 스스로 자발성이 결여되어 있는것을 느껴 매사에 적극성을 보여 바람직한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사례 2는 8회를 참석하여 자신의 문제를 가장 많이 이야기 하였던 사례로, 자신에 대해 자신감과 용기를 갖게된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으며, 다시 학교에 복학하여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개인 인격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창조성과 새로운 사태에 적절한 반응을 경험한 결과 청년의 자아상에 많은 변화를 보여준(Melzpfiff, 1982)결과와 일치하였다. 사례 3은 특별히 사회극을 실시하는 동안 불안정했던 목소리가 안정되어감을 볼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 의

식하는 자세에서 나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기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례 4는 책만 많이 보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사회극에 참여는 하였지만 자발성과 적극성이 없었다.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5, 6 모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은 경우였으나 타인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 내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자신의 갈등과 성격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사례 4, 5, 6은 청년의 자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제 1조건인 정열의 부족결과 자아상 변화에 도움(Melzpf, 1982)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자신에 대한 통찰력

자기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력과 주관적인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3).

<표 2> 자기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력

문	항	
나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2
나	자신의 문제를 알게 되었다	5
나	자신의 문제를 알게 되었지만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2
나	자신의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	0
내	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0

사회극 실시후 자신의 문제를 알게 되었으며 자신의 문제를 알게 되었지만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며 사회극은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내 문제가 나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자아-인식척도에서 점수가 높아진 것에 뒷받침이 될 수 있다. 이는 김혜열(1991), 이정숙(1991)의 연구 등에서도 같은 결과로 나타나 사회극은 청년들의 자아상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청년들은 다음 기회에 무대에 다시 오

르고 싶어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싶다고는 하였으나 사회극 무대에 올라 자신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참여한 학생들의 면접조사결과 청년들 자아상에 영향을 주는 부모와의 사랑결핍이나 대화가 부족하며, 자신들이 사회적응, 이성문제,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극후 느낀 점을 서술한 내용은 자신의 문제점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람들의 문제점을 들으며 자신감과 용기, 자신에 솔직해져 자아갈등을 잘 이해하고 통합하는 것으로 나타나 Shearon(1991)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참석회수가 적을수록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응답하여 사회극 참여회수가 자아인식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자발성의 원리에 기초를 둔 사회극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이상 연구결과 사회극을 통하여 청년들에게 역할극 자신의 꿈, 정신적인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상

황, 이 세상의 자연물의 역할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재창조되고 새로운 사태에 적응하여 통합하는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사회극을 통해 매회 사회극에서 6명이 다 카타르시스의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Sharon (1991), 김유광(1984)과는 상반되는 연구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6명이 워밍업이 잘 되었다 할지라도 사회극을 진행하는 과정에 새로운 보조 자아들을 만나게 되었을때 오는 저항감과 인간 내부에 흐르고 있는 동정평형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특성으로 이해

〈표 3〉 사회극 실시 집단들의 주관적인 평가

	내 용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아니다
자기이해	사회극후 자기자신을 볼 수 있다	5	0	1
	자신의 모습이 과장되게 느껴진다	2	1	3
	사회극후 나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되었다	4	2	0
	사회극후 내 소유의 사물에 대해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4	1	1
타인이해	사회극후 타인을 이해할 수 있었다	1	4	1
	사회극후 나와 관계 있는 사람과 원만해졌다	2	3	1
	내 문제가 나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4	0	2
사회극 실시 에 대한 느낌 (카타르시스)	사회극을 하기 전에는 불안하였다	4	1	1
	사회극에서 내 자신을 잘 표현하였다	0	1	5
	사회극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기분이 후련하였다	1	0	5
	사회극중 나의 모습은 진정한 나의 모습이었다	0	1	5
	내 자신이 너무 노출될 것이 후회가 된다	0	2	4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된다	5	1	0
	다음에 기회가 온다면 다시 무대에 오르고 싶다	5	1	0
나 자신이 다음에는 무대에서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싶다	6	0	0	

될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청년들의 자아상은 인간과의 상호의존적이며 성격 형성, 정신건강, 신념을 발전시키며, 환경적 스트레스와 질병으로 악화되기 쉽다고 하며(채석봉, 1989; 조영주, 1990; Lugo, 1979), 환경에 영향을 받아 시간적으로 현대로 이행하면서 독자적인 길을 걷기보다는 타인지향형으로 변화하며, 청년들은 시간적으로 미래 의존적 특성을 나타내지만 비행, 무능력 인격의 청년들은 미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ink, 1953; Lewin, 1951). 이와같이 청년들은 변화될 수 있는 자아구조에 가상적인 상황에서 좋은 경험, 치

료, 카운셀링을 하는 것은 현대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Rizzo, 1966; Matulef, 1969). 따라서 본 연구는 자아개발과 대인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사회극(김유광, 1987; 김해열, 1991; 이정숙, 1991)을 통해 보다 나은 자아인식이 되어 좋은 자아상을 확립이 되는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은 1994년 6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학생들을 그룹면담 및 개인면담을 하였으며, 사회극을 실시하고 면담조사를 하였으며 사회극은 김유광 신경정신과 소극장 "예"에서 14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극 실시후 첫째 사회극의 내용은 자기의 무능력, 부모님의 잔소리, 결혼,

일상생활 이야기, 불만많은 자신 등의 내용으로 청년들의 자아상을 투사해서 볼 수 있었다. 둘째 면접 조사 결과가 청년들의 자아상 확립에 영향을 주는 학업, 진로문제, 부모, 형, 율케와 갈등,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등이 어려운 것을 보여주어 청년들은 그가 처해있는 환경에 의해 정신건강, 자기수용,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세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인 사회극 진행은 자아상확립에 많은 도전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자신들의 문제점을 노출시키는 것을 불안하게 느껴 자발성 원리에 기초를 둔 사회극에서 청년들은 자발성 결여로 자아상 확립에 어려움을 보였다. 네째 하지만 사회극 종료시 자아통찰에 대한 결과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 공감을 하였고, 자기자신에 대하여 자신감과 용기를 가졌으며, 자신을 정리할 기회가 되어 청년들의 자아상 확립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보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사회극은 청년들의 자아인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실증되었으며 이러한 사회극 효과를 확대하여 청년뿐만 아니라 유아, 아동, 중년기에까지 사회극이 확대되어 효과를 거두어 보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또한 사회극을 경험하는 대상자가 충분한 위밍업을 경험해야만이 사회극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극을 하는 동안 충분한 위밍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청년들의 자아확립에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회측정 방법의 개발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참 고 문 헌】

1) 김선경 (1987). 우울성향과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아개념과의 관계.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 김수진. 오상은 (1991). 학교비행청소년의 자아개념과 가족의 기능 및 정신건강에 관한 비교연구.

전남대학교 논문집. 제36권. 75-89.
 3) 김유광 (1987). 정신과 환자에 대한 정신치료극의 치료적 효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사학위논문
 4) 김해열, 김혜남, 김유광 (1991). 대학생 집단에 적용된 정신 치료극의 효과. 신경정신의학.
 5) 박상미 (1991). 심리극을 통한 집단상담에서의 공격성과 자아개념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 이정숙 (1991).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년기 자녀의 갈등-사회극을 통한 방법으로. 한양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7) 이성일 (1986). 자아개념과 가정환경특성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8) 이춘실 (1982). 대학생 정상집단과 부적응 집단의 자아개념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재인용
 9) 전경렬 (1989). 직장인, 대학생의 신경증적 경향과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10) 정원식 (1968). 자아개념 검사법 요강. 서울:코리안 테스트 센터.
 11) 조영주 (1990). 국민학교 아동의 문제행동 요인과 자아기능과의 관계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2) 조희숙 외 9인 (1994). 아동발달 심리. 학지사.
 13) 채석봉 (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14) Conger. J. (1973). *Adolescence and Youth*. New York : Harper and Row
 15) Erickson. E.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 W.W.Norton Co.)
 16) Fink. H. H. (1953). *The Relationship of Time Perspective to Age, Institutionalization and Kuhl*.
 17) Greemberg. Lra A, (1974). *Psychodrama Theory and Therapy*. Behavioral Publications New York
 18) Kellermann. P. (1992). The Psychodramatist. *Journal of Group Psychotherapy Psychodrama and Sociometry* 74-87, Vol.45, No.3.
 19) Lugo. J. O. & Hershey. G. L. (1979). *Human Development*. New York : Machilian Publishing

- Co., Inc.
- 20) Lewin. K. (1951). *Field Theory in Social Science*. New York ; Harboer Bros.
- 21) Matulef. N. (1969). *Future Time Perspective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Made Adloescent Delinquents and Non-delinquents*. Dissertation Abstracts.
- 22) Melzoff. P. (1982). *The Bimodel Percebtion of Speech Infancy*. Science.
- 23) Rizzo. A. (1966). *Adolescent Future Time Perspective in Therapy*, Department of Child Psychiatrey. Washington University.
- 24) Remer. R., More. Brooks. H., Joellen Popma & Susam M. Jones (1993). Spontaneity Training and Psychodrama with Alzheimer's Patients. *Journal of Group Psychotherapy Psychodrama and Sociometry* 131-138, Vol.45, No.4
- 25) Shearon. E. M. (1991). Comparison of Rogers' Self Theory and Spontaneity Theory, *Journal of Group Psychotherapy Psychodrama & Sociometry*. 112-133, Vol.34, No.1.
- 26) Smokowski. P. R. (1992). The Anatomy of a Psychodrama Class: A Student's Perspective. *Journal of Group Psychotherapy Psychodrama and Sociometry* 112-121, Vol. 45, No.3.
- 27) 條田勝郎, A. A. シュッエンベルガ(1973). 現代心理劇—集團による演劇治療と自發性の訓練. 白水社.
- 28) 條田勝郎, デイデイエ, アンジュ(1975). 分析的心理劇. 牧書店.